

21세기 한국교회와 군선교 비전



박종화 목사

I. 문제의 제기

20세기 후반을 장식한 한국교회의 군선교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양적 성장이 같은 기간 동안 세계 어느 교회역사에서도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큰 폭으로 이루어진 것과 궤도를 같이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닌 흡인력과 성령의 역사가 이런 폭발적 성장의 핵심이다. 동시에 한국사회의 급격한 상

황변천과 영적 갈급함이 성장의 상황적 동원이 된 것도 사실이다. 복음전파를 향한 충성과 상황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려는 성실성을 한국교회가 보여준 것은 성장을 견인할 수 있었던 동력임이 사실이다. 21세기를 맞아 우리 한국교회는 전혀 형태를 달리하는 주변 상황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며, 복음의 진수를 어떻게 해석하고 접목시켜 이미 이룩한 양적 성장을 신앙의 질적 성숙으로 이끌어 가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군선교의 경우 대안모색의 과제는 더욱 절실하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의 비극의 역사 속에서 군선교가 출범했다(해군은 1950년 11월 10일 / 육군은 1951년 2월 7일 / 공군은 1952년 2월 10일).

남북 간의 살육전쟁은 정전협정의 형식을 빌어 일단 잠정 종식되었으나 결과물로 생겨난 세계적 냉전 체제 속의 적대적 대결 구도는 한반도 전반에 걸쳐 비정상적인 상황을 빚어 냈고, 군선교 역시 이런 큰 틀의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고 본다. 적어도 준전시 상황에서의 군선교라는 제한성을 지녀왔다. 1960년대 말에 시작된 「전군 신자화 운동」은 괄목할 만한 성장성과를 만들어 냈다.

그런데 지난 10여 년 간 소위 한반도에서의 적대적 냉전기류가 상당히 온류를 타고 평화공존의 상황으로 이동하는 상황적 변화의 기간 동안에도 170만여 명의 세례교인을 획득했다는 사실은 경이적 성과라 할 수 있다.

21세기의 군선교 비전을 살피려면 크게 보아 다음의 세 가지 과제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 약력 : • 독일 튀빙겐대학교 신학박사
• W.C.C. 중앙위원
• 경동교회 담임목사

첫째는 기왕의 군선교 공과를 냉정하게 분석해 보고 21세기의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야 할 긍정적인 선교 원칙과 전략을 찾아 이를 심화·확대해야 하는 과제이다. 예컨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추구해야 할 민족복음화의 대명제와 더불어 군선교를 통한 교회일치와 연합사업의 지속확장이 긍정적 과제에 속할 것이다.

두 번째 과제는 기존의 군선교 패러다임의 건설적 전환과 관련된 과제일 것이다.

21세기의 상황 가운데서 가장 괄목할 만한 변화현상은 정밀·기술 문명의 현장화일 것이다. 특히 군복무를 의무적으로 완수해야 할 신진 젊은 세대의 가치관과 사고방식 및 생활 패턴은 디지털 시대의 주도적 수혜자라는 점에서 과거 기성세대의 그것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 한반도의 상황이 설혹 남북관계나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제 질서의 판도에 긍정·부정의 부침과 우여곡절이 있기는 하지만 과거의 적대적 냉전적 대결구도는 이미 약화 내지 해체의 과정을 밟고 있으며, 동시에 전쟁위협에 찌들린 분단상황의 질곡에서 적극적 평화지향의 안보체제와 민족통일 구현이라는 새로운 상황변화가 군선교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다원화되고 있는 오늘의 21세기 현실에서 군선교는 군복무 기간이라는 시간적 제한성과 병영생활이라는 공간적 제한성을 넘어 군복무 이후의 사회생활에까지 복음의 진수를 접목시켜 명실상부한 “민족복음화”의 기틀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것은 바로 군선교가 일종의 “특수선교”의 영역에 고착되는 한계를 넘어 총체적 선교의 디딤돌 역할로 승화되어야 할 과제일 것

이다.

세 번째 과제가 있다. 20세기의 군선교 상황은 분단 체제 하에서 “반북·반공”이라는 안티체제를 지녔기에, 그에 따른 남한의 대북 안보를 뒷받침하는 “정신전력”을 신앙화하는 선교전략이 중심을 이룬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21세기는 남북간의 관계가 평화적 공존에서 출발하여 평화지향의 민족통일로 그 틀이 잡혀가는 상황에서 군의 역할은 물론 군선교의 기본방향과 전략이 일대 수정보완을 해야 한다. 일종의 선교적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통일 이전의 적대적 분단갈등에서 통일 이후의 평화정착을 목표로 하는 군선교, 그와 병행하여 추진해야 할 민족번영과 복리를 수반하는 민족복음화로서의 군선교가 그것일 것이다. 즉,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이라는 21세기 기독교운동으로 선언하여 실천되고 있는 비전2020 운동의 이념과 전략이 그 기준이 될 것이다.

II. 군복음화 운동의 지속적 강화

군복음화를 우선적으로 입대한 장병들을 포함한 장기 직업 군인들의 복음접목과 세계사역을 의미한다. 이미 추진 중에 있는 ‘비전2020’ 계획에 따르면 매년 새로 세례 받을 22만 명과 입대전 수세자 3만 명을 합한 25만 명 가량이 세례 받은 기독교인으로 사회에 배출되고, 2020년까지는 연인원 625만 명의 신자가 생겨 이들이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루어 복음화 되면 4인 가정을 상정할 때 2,500만 명의 성도가 된다. 기존

의 1,200만 정도와 합하여 3,700만 명의 기독교인이 되면 전 국민의 75%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맘모스 복음화 계획이다.

일단 군중목사 파송교단과 합의하여 추진 중인 「비전2020」은 한국교회와 군인교회가 합심하여 전력을 다해 결실로 이끌어야 한다. 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은 치밀하면서도 조직적이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로 이미 개발된 전술과 프로그램에 대하여 민간교회와 군인교회는 분명한 책임감을 갖고 실천해 주어야 한다. 군복음화로 민족복음을 이룩하겠다는 ‘비전2020’ 운동의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이 역할분담토록 되어 있다.

현재는 군인교회는 전도하여 세례를 주고, 민간(군선교회원)교회는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군인교회와 민간(군선교회원)교회가 연합해서는 양육과 민간(군선교회원)교회의 미래출석교인으로 결연을 하자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군인교회는 ‘한생명 살리기 5대 실천사항’-(1) 불신전우 전도 (2) 결신전우 세례 (3) 초신전우 양육: 주일예배 참석토록 인도, 성경공부 (4) 양육전우 결연: 명단수집, 제출 (5) 결연전우 관리: 민간교회로 결연된 후 관리여부 확인 점검-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민간(군선교회원)교회는 군인신자 명단, 즉 본교회의 미래출석교인 명단이 군선교연합회로부터 우송된 후부터 ‘사랑의 양육 10대 실천사항’-(1) 사랑의 청지기: 전담부서, 전담인도자 선정 (2) 사랑의 등록: 미래출석교인으로 공식 등록(교적카드 작성) (3) 사랑의 기도: 1·1·1 중보기도 실시(매일 한 영혼을 위해서 1분 이상 기도) (4) 사랑의 편지 (5) 사랑의 선물: 절기, 생일, 진급시 (6) 사랑의 심방: 면회 (7)

사랑의 초청: 휴가, 외박시 (8) 사랑의 전도: 평소 가족 전도 기회로 적극 활용 (9) 사랑의 등록: 전역시 본교회 출석교인으로 영접 (10) 사랑의 후원: 군선교 사역을 위해서 군선교 현금(군선교연합회 후원)-프로그램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필자가 군목으로 복무할 당시(70년대 초) 상기와 비슷한 방식으로 서울의 초동교회와 선교협력을 맺어 휴가장병들의 매주일 예배 참석과 친교, 접대 및 부대방문과 중보기도 등을 권면하며 신자화 운동을 도운 바 있다.

군인교회와 민간교회의 담임목사들이 분명코 깊은 관심을 갖고 본교회에 정착이 되도록 지도하며 실천해야 한다.

둘째로 한국교회 전반의, 특히 군선교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교회들의 연합운동으로 군선교에서 심화·확대하는 사명이다. 한국교회의 교파별 분열에도 불구하고 군선교 현장에서는 일종의 “선교적 일치”를 이루고 있으며, 이런 일치는 군중목사들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군복무 중의 모든 신자들 사이에서도 존중되고 실천되도록 함이 옳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군선교에 합당한 예배의식, 설교 및 성경본문, 교육교재 등을 연합적으로 마련하여 전군을 통틀어 통용되는 실질적 일치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일치 속의 군선교 신앙과 신학의 구현이라 할 것이다.

군중부와 민간교회가 합동으로 이 작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정적, 학술적 지원을 군선교후원회가 연합으로 담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III. 군선교 패러다임의 건설적 전환-“생활신앙” 지향으로

군선교가 기독교 신앙을 군복무자들에게 접목시켜 신앙인으로 살게 하는 전도형 선교 못지 않게 기독교 신앙적 가치관으로 실제생활을 이끌어 가는 생활 신앙적 훈련으로 관심의 영역을 확장해 가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과제가 제기된다.

첫째는 군복무라는 특수한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복무자들의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우선 장병들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군복무 자체가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때문에 피할 수 없이 부과되는 “국방의무”라고 인식한 경우가 99%에 달한다. 결국 군복무를 자발적 선택이 아닌 강요된 의무라 보며, 특히 군복무 자체를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적극적 인생수련장이기보다는 소극적 참여의 현장으로 파악하고 있음이 현실이다.

이런 인식은 국가건설 이후 오늘날까지의 부정적 군복무관에서 전혀 변함이 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일반교회의 경우보다 군신자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타율적 군복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에서 맛보고 싶은 심리적 안정과 위안의 필요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일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장기 군복무자들에 대한 신앙 전략적 배려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단기 의무군복무자들을 특별 배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적어도 군복무 기간이 전체 인간 삶의 기간에서 불필요한 “강요된 징집”이 아니라, 여타의 사회교육 기관이나 경력에

서 맞볼 수 없는 유용하고 특수한 인생교육 및 인생훈련 기간으로 받아들여 적극적 인간개발 및 인성훈련에 매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한국사회의 깊은 곳에 뿌리박고 있는 지연, 혈연, 학연의 고리가 차단된 채, 모두가 같은 조건과 환경에서 공동체적 삶을 경험하고 각자의 인격을 개발하고 군복무 후의 사회생활에서의 인생을 준비하는 고귀한 수련기간으로 승화시키는 신앙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청년들이 거의가 한 번은 거쳐가야 하는 군복무를 평생교육과 훈련의 한 매듭으로 삼아 그에 맞는 학습자료와 교과과정 및 인생수련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외형적으로 보아 순탄한 인생과정을 겪어온 젊은이들과 가정붕괴로 인한 결손가정(전체 신세대 장병 가운데 30-40%가 이 카테고리에 속함) 출신의 젊은이들이, 부유층과 빈곤층 출신의 젊은이들이, 엘리트층과 평범한 층의 젊은이들이 한술밥을 먹고 한 막사에서 생활하고 한 부대에서 복무하는 인생광장은 역시 “다양성 속의 일체감”을 심을 수 있는 인생학습장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런 학습현장의 기초과목이 될 수 있어야 하며, 궁극적인 인생설계와 비전의 살아있는 원동력으로 승화될 수 있게 군선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둘째는 군선교가 “군복무 기간”이라는 특수한 기간과 특수한 환경에 초점을 맞춘 특수한 선교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기독교 신앙이 군복무와 사회생활의 양쪽 영역을 관통하는 전류로 역할하듯이 병영생활 속의 인생경험은 군복무

이후의 사회생활 곧 국민도덕 함양의 한 훈련장으로 질적 승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기독교의 선교가 지향하는 기독교 신앙에 바탕을 둔 기독교 문명 내지는 기독교 문화의 한 시발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예컨대 ‘비전 2020’이 결실되어 75%의 국민이 기독교 신자가 되었을 경우 이 땅의 도덕과 윤리, 국가경영과 국민성, 세계를 지도할 정신적, 역사적 지도력, 삶의 질, 공동선과 사회정의.....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기독교적 가치관이 75%의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보는가?

수량적 크기와 질적 가치가 융화되어 결실화되지 못하면, 명목상의 기독교 신자화가 실질적 생활신앙과 괴리되어 기독교 이름으로 세속주의를 방치 내지 조장하는 원치 않는 결과를 빚어낼 수 있다고 본다. 결국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또 하나의 국민교육의 장”으로서의 군선교 영역을 재개발할 필요가 절실하다. 이것이 21세기에 필요한 군선교 비전일 것이다.

IV. 군선교 패러다임의 건설적 전환-“평화통일” 지향으로

군선교는 출발부터 기독교 신앙의 정신전력화 내지 정신전력의 신앙적 결집화를 내세워 왔다. 여기서 가장 강조해야 할 덕목은 “적과 싸워 이길 수 있고, 싸움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투철한 사생관의 확립이다. 이것이 국가와 민족에 대한 헌신적 애국심과 결부될 때 유사시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평화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존경과 칭송을 받게 된다.

그런데 21세기의 상황은 이상과 같은 “전쟁”을 상정한 무형전력으로서의 신앙훈련만으로 군선교를 한정할 수가 없다. 세계적으로 냉전체제가 구조적으로 해체되었으며, 한반도의 상황에서도 궁극적으로는 냉전해체 방향으로 진척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전쟁방지를 넘어 적극적인 평화 만들기 주역으로서의 국토방위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설정해야 한다. 군선교 역시 용감한 신앙적 전투력을 넘어 생산적 평화 구조를 건설하는 신앙적 창조력을 심어줄 과제를 안고 있다.

오늘의 세계현실에서 또 한반도의 분단현실에서 신냉전의 기류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크게 보아 적대적 냉전에서 벗어나 생산적 경쟁을 통한 평화구조 만들기가 우리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새로운 질서 형성에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적대관계 속에서 “적”을 분명하게 설정한 바탕 위의 신앙훈련과 정신전력 강화는 그 수행에 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적대적 관계에서의 “적”의 모습이 자취를 감추고 생산적 대안을 만들어 가는 일은 훨씬 어렵다.

“죽음이 생명에 삼킨 바 된”(고전 15:54) 부활의 사건을 바탕으로 우리는 “적대적 전쟁을 생명의 평화로 삼킬 수 있는” 적극적 평화 만들기 주역의 하나로 군대를 상정해야 한다. 바로 평화지향의 안보, 전쟁의 심리와 논리와 실천을 삼키고 극복하는 평화공동체 형성,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엡 2:14)임을 확인하고 체험케 하는 평화지향의 군선교가 새롭게 시작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이것이 군선교 패러다임의 계승과 생산적 전환의 진면목이다.

또 하나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은 곧 군선교라 이름하는 선교어장은 분단된 남쪽 땅만이 아니라 북쪽 땅까지도 포함하는 통일선교로 승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통일 이후의 한반도를 염두에 둔 평화의 한반도를 비전 속에 담은 군선교이어야 한다. 솔직히 말해서 통일이면 만병통치라는 통일지상주의는 위험한 발상이다. 통일의 목적과 비전은 분명히 평화이다. 통일지향의 과정은 전쟁이 아닌 평화적 방법이라야 한다. 6·25전쟁을 몸소 겪은 우리 민족은 이런 뜻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의 가능성을 1%라도 남겨놓지 않도록 안보의 틀을 다져야 한다. 동시에 전쟁가능성을 차단한 바탕 위에서 펼쳐는 평화는 군사안보를 포함하여 국민의 복리를 담보하는 식량안보, 자유와 평화를 몸바쳐 지켜 내려는 의식안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을 계속 아름답게 가꾸어 내는 환경안보,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자율을 지키는 인권안보, 국민 모두의 정신적 바탕을 지키는 정신안보,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탕 삼는 신앙안보.....이것들이 바로 평화 만들기 안보의 현장들이다. 적어도 군선교는 이런 21세기 평화 만들기의 첨병인 군을 기독교 신앙으로 접목하여 양육하는 사명을 받고 있다.

군부대에서 군선교 활동 내지 군중활동을 군 지휘 체계의 한 부속기능으로 이해하거나 활용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평화정착의 역군을 지탱하고 힘을 부여하는 정신적 기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군중활동은 국민 속에 뿌리박고 국민의 사랑을 흠뻑 받는 국민의 군대로 탈바꿈하는 일에 크게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억지로 복무하는 군대도 아니고 울며 겨자먹기로 보내야 하는 부모들의 아쉬움의

표정의 군대도 아닌, 자식들을 보내고 싶고, 스스로 사랑하며 사랑하고 싶은 군대로 승화시키는 일도 군선교가 담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본다.